

총장-뉴스레터 – 86 (2024-8-2)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호수아 4:20-2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잇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하였다. 그 곳에서 삼 일을 지난 후에 유사들을 진중으로 다니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 좃으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넘으로써 하나님백성의 역사에 새 장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몸소 길을 보이신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표인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므로 백성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2,000 규빗, 약 1,000 미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것이 이제 일어날 기적을 통하여 증명될 것이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오로지 여호수아의 이름과 연결된다.

요단의 물이 멈추다 (3:15-16)

요단의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곳을 건너게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들여 놓자 흘러내리던 요단 물이 멈추어 서고 벽을 이루었다. 상류에 있던 아담 지역은 멈추어 선 물의 범람으로 물바다를 이루게 되었다. 홍해에서 물이 빠져나갔던 기적이 여기에서 되풀이된다. 바다와 강이라는 규모의 차이는 이 때가 강물이 넘치는 때라는 사실에 의해서 줄어든다. 헤르몬 산의 눈 녹은 물이 모택 거두는 시기에는 강 언덕에까지 넘친다.

요단 건넌 것을 기념하는 돌 (4:3-7, 20-22)

요단을 성공적으로 건너자 여호수아는 매 지파에서 한 사람 씩 택하여 요단 강 가운데서 돌 열 둘을 취하라고 하였다. 돌 열 둘은 기적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동시에 이 돌들은 열 두 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의 통일성을 표현하는데, 이 통일성은 두 지파 반의 거주지가 따로 요단 동쪽 땅에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5 절의 표현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 지시를 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는 도중에 취한 돌들을 강변에 임시로 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길가에 세우게 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는 돌 열 둘을 요단 가운데, 물이 줄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곳에 세우고, 다른 하나는 길가에 세우게 한 것이다. 길가는 여러고에서 요단 강 방향으로 2,3 마일 가량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두 사건 모두 열 두 지파로 이루어진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몸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 두 돌기둥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이런 기적이 자주 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믿는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5:1)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소식이 요단 서편 가나안의 왕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를 보여 준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이스라엘이 격파한 사건을 들었을 때부터 이러한 충격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그 강을 건너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은 이 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가나안의 왕들은 혼수 상태에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 사건은 구원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름다운 소식이었다.

생각하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매우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전투적인 족속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용맹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인 사혼과 옥을 쳐단하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비록 약했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세상의 모든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교육해야 하겠다.